

수묵화도 이렇게 화사할 수 있구나

광주시립미술관 '산수보다 아름다운 산수-매정 이창주展' (8월 9일까지)

남농·의재 남종문인화 화백 잇기 평생 외길
이화백 "18년만에 광주 전시...너무 고마워"
증조부·조부 이어 아들까지 4대 작품 함께



'추산청류'

장흥 출신 매정 이창주(84) 화백은 평생 고집스럽 게 남종문인화의 맥을 이어온 작가다. 겹겹이 보이는 산들과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 소나무와 단풍, 그리고 그 옆에 자리한 정자 한 채가 이 화백의 작품에 담겨 있다.

조선대 최초의 한국화 졸업생이기도 한 이 화백이 전통 문인화의 맥을 이어온 이유는 뭘까. 그는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선대의 작품을 보면서 화가의 꿈을 키웠다. 증조부 설초 이자원(1855~1923) 선생과 조부 송파 이정흠(1882~1937) 선생이 이 화백을 작가로 길러 이끄셨다.

설초 선생은 소치 허련의 문하생으로 남종문인화 가였고, 송파 선생은 해방 이전 일본에서 '일본 문전', '일본 전국서도작진회전' 등에서 특선하고, 20여 회의 개인전을 가졌을 만큼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 화백의 부친은 붓을 잡지 않았지만 집에 간직돼 있던 선대의 작품과 집안 대대로 내려온 중국 정초에 간행된 화보인 전통동양화의 교과서 '개자원화전'(芥子園畫傳·1800년대 제작 추정)을 보면서 그림을 배웠다. 그리고 현대미술작가인 이 화백의 장남 이동환(48)씨가 그림을 그리면서 4대가 화가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달 18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산수보다 아름다운 산수-매정 이창주'를 주제로 열린 본인의 개인 전 개막식에서 만난 이 화백은 "너무 고맙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이 매년 호남화단을 이끌어온 대표 작가 1명을 선정해 개최하는 원로작가초대전으로 오는 8월9일까지 계속된다.

1997년 조선대 미술대학을 정년하면서 광주일보가 주최한 개인전 이후 18년 만에 광주에서 열린 전시였기 때문에 이날 이 화백의 감회는 남달랐다. 불편한 몸을 휠체어에 의지한 채 전시장을 찾은 그의 곁에는 항상 아들 이동환 작가가 서 있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자연이 지닌 정취를 남종문인화로 표현해온 이 화백이 평생 추구한 예술세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거칠면서 툭툭 눌러 내려



전시 개막식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창주 화백과 아들 이동환 작가

는 듯한 힘이 넘치는 필치 안에서 느껴지는 화사함은 의재 허백련 선생과 오지호 화백, 남농 허건 선생의 문하에서 그림을 배우면서 완성한 이 화백만의 독자적인 화풍이다.

특히 전시장 한 쪽에는 이 화백을 비롯해 설초 선생과 송파 선생, 그리고 아들까지 4대의 작품과 화구들이 함께 전시돼 있다.

1970~80년대는 남종문인화의 황금기였다. "남도에 가면 그림 한점은 꼭 얻어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미술이 등장하면서 남종문인화는 한국 미술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했다.

미술관 측은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 속에서 전통수묵화의 계승과 발전을 생각해보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동환 작가는 "제가 현대미술을 하면서 그동안 아버지의 작품들이 예전, 아주 과거의 미술로만 생각했다"면서도 "이번 전시를 보면서 가치 있는 일을 아버지께서 놓치지 않고 하셨고, 그 안에서 과거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고 배울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문의 062-613-71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종회 작 'Afterimage'

대인시장은 지금 '색의 향연'

한평갤러리 18일까지 지역작가 초대전

대인예술시장에서 색의 향연이 펼쳐진다.

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가 오는 7월18일까지 '색계'(色界)를 주제로 다섯 번째 전시회를 연다. 초대 작가는 김준표, 마리아 하포넨코, 박성문, 박정주, 이종회, 정진영 등 지역작가 6명으로, 이들은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경지'를 색을 통해 보여준다.

이종회 씨는 이미지와 색, 그리고 허공을 전, 선, 면 등 순수조형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제거해 보다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마리아 하포넨코는 사실과 추상을 넘나들며 인간 감정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한다. 특히 입술과 입을 통해 관능적이고 고혹적인 성적 판타지를 도발적으로 표현한다. 박성문은 인간 삶에 대한 메타포를 '잉어'를 통해 이야기 한다. 탐욕 등에 물들어 본질적 가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물고기를 통해 엿보고, 반성할 수 있다. 문의 010-2620-861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타악그룹 '얼쑤' '모듬북' 공연

11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타악그룹 얼쑤(대표 교장길)가 오는 11일 오후 3시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열리는 '모듬북'을 선보인다. <사진> 이번 공연은 전통 모듬북과 퓨전북의 힘찬 연주로 하게 유니버시아드대의 뜨거운 열기를 들은다.

첫 무대는 서양 드림을 응용해 제작한 타악기의 독특한 울림과 함께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질주' 공연을 시작으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약기를 두드리는 '나도 연주자'가 진행된다.

이어 대북과 통북으로 만드는 힘찬 울림과 함께 불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타고'가 펼쳐진다. 한편 얼쑤는 일상생활과 놀이가 함께하는 새로운 무대를 연구 개발하는 타악 그룹이다.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흥부와 놀부' 무용극이 더 재미있네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 12일 전통문화관서 공연

고전 소설 속 흥부와 놀부가 유쾌한 무용극으로 돌아왔다. 조선대 무용과 김미숙 교수가 이끄는 김미숙뿌리 한국무용단이 12일 오후 3시 광주전통문화관에서 '흥부가 기가 막혀'를 공연한다.

2015년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 선정 기획인 '광. 7색 7舞-무들을 춤추다' 두번째 작품이다.

작품은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팔도강산'에서는 조선 팔도를 유람하던 무희들이 광주 땅에 정착하는 모습을 그려진다. 이어 밥동냥에 나서는 불쌍한 모

습이 그려지는 2장 '흥보 지식들', 집에서 쫓겨난 흥보 가족의 신세를 묘사한 3장 '흥보가 기가 막혀', 심술쟁이 놀부 마누라를 그린 4장 '영감 왜 불러' 등을 통해 흥겨운 춤사위를 선보인다. 이어 '복들어 온다', '용사', '경사로구나' 등으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김수영·김차연·김보라·김원선·나유정·서로사·박형주·박소진·박정민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숙 교수와 공진희·한명선씨가 안무를 맡았으며 최인경씨가 지도했다. 문의 062-230-7425 /김미민기자 mekim@



김미숙뿌리무용단의 '흥보가 기가 막혀' 공연 모습.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2년만의 **빅세일** 7월 25일까지

이태리가구 SALE

www.hong79.com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홍스케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